

서구청장 여성후보 20% 가산점 최종 확정

민주 당헌·당규 적용...여론조사 경선결과 주목

민주당은 29일 논란이 제기됐던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가산점 20%를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에서 여성 후보들이 남성 후보들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과 박해자 후보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성후보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가산점 부여 여부를 협의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를 2명의 여성후보에게 모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3월 2일 개정된 당규 제46조 공직선거후보자 결정 2항에 '당헌 제96조 제6항에 따라 여성후보자의 경우 본인 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에 20%를 가

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0% 가산점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와서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0% 가산점의 강제조항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경선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를 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옥 전 시의원과 박해자 후보대 교수 등 2명의 여성후보가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조용진 전 광주시기획조정실장 등 2명의 남성 후보보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여론조사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중앙당의 여론조사 여성 가산점 부여 확정에 대해 가산점 철폐를 건의했던 조윤진 예비후보는 "같은 정치 신인으로서 20%라는 가산점이 큰 장벽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 더 이상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29일부터 이틀간 2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 1400명, 당원 1400명 등 총 2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30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판문점 찾은 북한주민들 44년만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가운데 29일 오전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을 견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발전 위해 자치권 대폭 확대돼야”

강운태 시장 강조

강운태 광주시장이 29일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서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하는 등 '지방자치의 위기'를 거론하며 최근 잇따라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서구 상무지구 한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지역발전정책설명회' 축사에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자치권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2~3월에 불과한 지방자치를 5월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또 "과거 10여년 간 수도권 980

개 이전기업 중 광주와 전남으로 옮겨온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이전할수록 지원을 늘리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앞서 강운태 시장과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별도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자치권 확대 필요성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곡성 기초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3명 접수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곡성군 기초의원 선거구(곡성읍·오곡면·목사동면·죽곡면·고달면)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 공모 신청결과 ▲조상래(53·전 전남도의원) ▲김관준(60·전 곡성군의원) ▲고구주(57·곡성군 생활체육회장) 등 3명이 등록, 접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30일 오후 3시 도당 사무실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위원장 이낙연)를 열고, 당헌·당규 상의 심사기준과 방식에 따라 서류심사 등을 거친 뒤 빠르면 내달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정은, 김정일 바로 아래 '2인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군 장악 토대 마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28일 44년만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북한 인민군을 지휘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의 위원장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재선임돼, 결국 김정은은 군사 분야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군 장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의 기존 직제에는 당 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김정은을 위해 신설한 것이 아닌 자하는 추측을 받고 있다.

최근 군의 실세로 급부상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돼 군 경험이 거의 없는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중앙군사위에는 이번 대표자회 직전

김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이 가운데 3명만 유임하고 대신 16명이 새로 총원내 총원 19명으로 대폭 보강됐다.

"김정은의 나이와 경력을 감안할 때 정치적 사무위원 같은 자리에는 앉히지 어렵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바로 아래 자리를 쥐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당 정치적 사무위원에는 김정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5명이 선임됐다. 김정은과 함께 '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당 경공업부장)는 당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 겸임)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이 됐다. /연합뉴스

10·27 재선 현장

김선옥 “여성정치 선구자 역할 했다”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지난 6·2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 나서 불과 5% 차이로 패배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며 지지자를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도 업무를 내지 못했던 첫 여성 구청장 후보에 과감히 도전해 38%라는 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여성정치인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줬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 민주당 공천에 무려 5명의 여성후보들이 신청을 했다”며 “광주에서 최초의 여성구청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함께 클린서구, 안전 서구를 위한 ‘범시민연대기구’를 만들겠다”라며 “범시민연대기구는 구청장과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회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 경쟁력이 부족한 행정관료 출신 후보 등의 타성에 젖은 민주당 공천은 ‘본선 민주당 필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서구민과 민주당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주민 현명함 믿고 당 결정 승복”

조용진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중앙당이 여성후보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치신인에게 큰 장벽이 되겠지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당원서에 인크도 마르기 전에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입당과 탈당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구청장에 당선 되더라도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예비후보는 “33년간 오로지 시민들을 믿고 행정을 했듯이 이번 공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도를 걸어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송갑석 “본선 경쟁력 높은 후보 지지”

송갑석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이번 1차 컷오프 논란으로 민주당 공천 과정에 흠집이 발생한 가운데 비민주적 4당이 본선에서 꺾고 개혁적인 인물을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에게 쉬운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민주당이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낙 달 전 선거에서 구민으로부터 심판 받은 후보, 입당할 지 며칠 되지 않은 이음조차 생소한 후



박해자, 클린 범시민연대기구 제안

박해자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클린 서구, 안전 서구를 위한 범시민연대기구를 제안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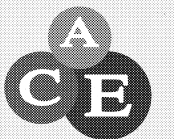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땀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게·목결림, 수직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